

떠도는 도시

차영일

물은 낮은 데로만 흘러내렸다. 야트막한 경사의 작은 흠이나 틈이나 웅덩이를 지나가다 고이면 다음 물살이 고인 물을 끌어내어 아래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곧바로 수면은 빠르게 높아져서 조금 전의 길은 급제 지워졌다. 물은 계속 고이면서 경사의 끝을 지우며 수평선을 지면보다 높고 빠르게 끌어올렸다.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 게 아니라 물을 건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마다 특색 있는 겹겹이쳐처럼 물은 사람을 만나 각기 다른 소리를 냈다. 도시는 물소리 때문에 계속 시끄러웠다.

대수는 통제되지 직전 지하철역에서 빠져 나왔다. 거센 빗방울이 사람들의 거죽을 쿡 쿡 떨어졌다. 사람들은 허리를 굽히며 우산을 방패 삼아 전진하느라 느끼게 이동했다. 우산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가장 무거운 단 하나의 무엇처럼 보였다. 대수는 지켜야 하기에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그 무엇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고개를 돌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길을 때마다 바닥에서 점점 점점 물소리가 났다. 우산 없이 걸어가는 대수는 빗물이 가시처럼 느껴졌다. 점점 온몸이 뭉개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질 때에야 허전함을 느꼈다. 지하철에 뭉개어 두고 내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를 가로저었다. 현기증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 한숨을 내쉬며 머리 흔드는 일을 멈추었다.

오늘도 퇴짜를 맞았다.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인체소 사장은 대수의 이력서를 보자마자 대뜸 눈살을 찌푸렸다. 따귀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당시는 또 별을 받아야겠군. 대수를 내리깔아 보던 사장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시켜만 달라는 간청이 목을대들 떨게 했다. 에어컨과 선풍기 앞에 섰는데도 땀이 흘렀다. 이쪽 계통에 경험도 없는 데다가 자꾸 말해서 미안하지만 나이도 많고, 사대보험 들 쳐지도 아니라면서? 사장은 혀를 찼다. 돈도 못 버는 죄인이 무슨 위원이랍시고 갑축거리느냐고 호통치던 노인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수인형을 사달라고 한 달 전부터 즐라대던 회아의 우는소리로 들려왔다. 차이를 치르더라도 마련해야 할 사수인형이었다. 대수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한 달 넘게 수심 장의 이력서를 들고 바깥으로 나왔지만 차비도 건지지 못했다. 저지대의 교차로에서 그만 뺨뻐거렸다. 대수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비에 젖지 않도록 한 손에는 휴대폰을, 나머지 한 손으로는 비닐로 감싼 서류봉투를 바투 걸머쥐었다. 진동음이 느껴졌다. 비틀어 쥔 손목에 빗물이 스며들었다. 대수는 장대비를 피해 상가 건물로 들어갔다. 기다리던 전화는 아니었다.

조폭 영화에서나 봤던 신체포기각서를 쓸 뻔했다. 사흘 만에 원금 빼고 백오십만 원이던 이자가 이백만 원으로 불었다. 정부가 고리대금업을 단속한다고 해도 그들은 저지대로 몰려드는 물처럼 은밀했고, 어느 때는 가파른 언덕을 순식간에 내려오는 정령군처럼 무자비했다. 나름 업계에서 양심적이라고 말하던 사장의 면상을 후려치고 싶었으나 제 목숨값이 오십만 원이라는 데 기가 막혀 힘이 쏙 빠졌다. 신체를 포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삼 일을 더 산다는 기대감에 문을 열 힘이 생겼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텐데, 하는 사내의 허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수는 돌아보지 않고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문을 등지고 종일거렸다. 속도 없는 놈, 사내답지 못하게! 신문지를 방망이 삼아 후려치던 아

한 달 넘게 수심 장의 이력서를 들고 바깥으로 나왔지만 차비도 건지지 못했다. 비에 젖지 않도록 한 손에는 휴대폰을, 나머지 한 손으로는 비닐로 감싼 서류봉투를 바투 걸머쥐었다. 진동음이 느껴졌다... 기다리던 전화는 아니었다

버지의 말을 저도 모르게 뇌까리는데 아무나 붙잡고 욕을 해댔 뻔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계단 난간을 잡고 주저앉아 이력서를 구겼다. 구겨진 이력서를 북북 찢으려다 말고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신발끈을 매는데 회아가 바짓자락을 붙들고 늘어졌다. 오늘은 꼭 사수인형 사 올 거지? 한 달이 넘었잖아. 도깨비도 약속 지키는데 아빠는 뭐야. 대수는 회아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아빠 믿지? 목적이 따가웠다. 아빠를 믿느니 여기 네 동생을 믿는 게 낫겠다. 아내가 회아를 대수의 품에서 빼내며 악을 울렸다. 아내의 부풀어 오른 배를 보자 눈이 시큼해졌다. 회아가 제 엄마의 배에 귀를 갖다 대며 말했다. 동생아, 이 언니 믿지? 아내는 대수와 눈이 마주치자 웃음을 멈추었다. 회아 하는 말 들었어? 애가 금방 배우잖아. 우리 딸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들 거야? 둘째의 출산예정일은 삼 일 후였다. 출생신고서나, 신체포기각서나? 아무 데나 사인을 휘갈기면 그만일 텐데..... 문득 사냥으로 잡은 사슴을 어깨에 둘러메고 개선장군처럼 짐으로 들어서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대수는 웃으면서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는 기대하지 않지만 웃는 걸 보니 안심은 된다고 등을 두드리며 배웅했다. 위쪽으로 난 계단에 햇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대수는 문 닫히는 소

리가 나지 않는 뒤를 돌아볼까 해서 잠시 멈춰 섰다가 유리문을 열고 나섰다. 대수는 땀방울로 나왔다. 땀방울 들고 확정기에도 현월하라고 고함지르는 적십자 직원을 보며 담배를 물었다. 마지막 담배였다. 술을 끊어도 사수인형을 사지 못했다. 담배라도 끊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피라도 팔아야 할까? 아이는 성탄절도 아닌데 왜 자꾸 사수인형을 사달라고 졸라대지? 이곳은 피 흘린 사슴이 어울리는 원시림이다. 대수는 화들짝 놀라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입술이 떨 때까지 필터를 빨았다.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쥐어짜는 고리대금업자처럼.

도시의 발달 과정에 사슴은 어떤 상징이었을까? 사슴 한 마리조차 사냥할 도구도, 힘도, 용기도 가지지 못한 아버지는 징벌 되어야 마땅할까? 물물교환할 처지가 못 되니 밥을 덜 축내는 거로 아버의 도리를 다해야 하는가? 대수는 땀방 속을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허기를 잊는 게 잘 안 돼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썩은 동아줄로 고래잡음 같은 세상을 어떻게 이겨 먹겠냐고 묻던 아버지에게 대수는 소리를 질렀다. 칠 년입니다, 칠 년! 그동안

어떻게 아버지를 이길 것인지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독하고 못된 저질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복하는 거라고요! 대수는 다섯 군데를 더 돌아다녔지만, 사수인형을 언제 장만할지 상상조차 못했다.

광택 나는 중형차를 타고 날마다 벡타이를 바꿔 매며 출근하던 금융종사자였던 시절이 있었다. 아버지는 삼대독자에게 무지렁이, 가난뱅이 시절을 물려주지 않았다고 집착했다. 아버지의 말처럼 골백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할 무지와 가난 따위에 대수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수는 고시생활을 청산하고 약성채권을 받아내는 금융맨이 되었다. 아버지 대한 복수이기도 했지만,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부자지간의 전환점이 필요했다. 독립해야만 했다. 아버지가 대수를 대문 밖으로 내치면서 말했다. 건물에 금이 생기면 틈새는 건잡을 수 없게 늘어나는 법이야. 틈새는 온갖 벌레들의 집이 되고 말지, 그 벌레가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름지 않거든. 사람이 살려고 만든 집에 벌레가 들어오는 걸 그대로 놔두면서 무슨 공리를 제대로 하겠어. 대수는 아버지의 말을 비틀어 대꾸했다. 양금이겠지요, 아버지가 억지로 만들어낸 그놈의 양금 때문에 나는 버러지가 됐다고요. 그건 아버지가 만든 거라고요. 현관문이 요란하게 닫혔던 그

날에도 장맛비가 쏟아졌다. 양금은 장맛비처럼 대수의 짧은 날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다.

고객인 체하는 약성채무자에게 넌더리가 나고, 실적 운운하면서 감봉조치라는 발칙을 수시로 반복하는 팀장에게 살기가 느껴졌다. 때려치우고 싶은 충동이 아버지에게 대한 복수심보다 더 강하게 자신을 일그러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수는 약성채권 리스트에서 동창의 이름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었다. 술이나 한잔하자는 제안을 마다하던 동창에게 대수는 말했다.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 얘기해야겠네. 약성채권팀의 오대수입니다. 전화를 끊으려던 동창이 말을 잊지 못했다. 대수는 맹수처럼 동창의 급소를 물고 늘어졌다. 그래도 넌 행운이야. 나한테 딱 걸렸으니까. 동창은 백기를 들었다. 그게 올가미가 될 거라는 어떤 징후도 없었다. 어쩌면 올가미에 빠져 허우적거리더라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독립하는 자유가 더 달콤했는지도 몰랐다. 동창의 약성채권을 자신의 신용대출로 갚는 조건으로 편의점을 인수했다.

대수는 전봇대를 붙잡고 멍하니 섰다. 통증이 물려왔다. 사대보험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깎으면서 들어갔던 택배회사에서의 둘째 날 아침부터 허리에 답이 올라왔다. 연립주택 오층에 헬스기구를 배달하다가 허리가 꺾였다. 다음 날, 착불로 반품하던 전화를 받고 그만두었다. 그때 일은 통증이 수시로 물려왔다. 음주운전 사고로 구치소에 구금되면서 통증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다. 아내에게 사체를 빌려서라도 합의해야 한다고 울먹거릴 때는 아파서였는지 억울해서였는지 분간을 못했다. 아내가 급전을 빌려왔을 때 대수는 편의점의 나날을 떠올리며 통증을 잊었다. 과거의 차욕과 분노로 현재의 통증을 잊는 공여지책이 무자비하게 느껴졌지만, 꽤 쓸 만했다. 대수는 통증을 잊으려 할 때마다 그때를 떠올렸다.

편의점은 장사가 잘되었다. 노름빚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먹고살 만했다는 동창의 말은 사실이었다. 게다가 도박할 만큼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는 데 매료되었다. 그 당시 주변 상권에 편의점은 많지 않았다. 본사의 관리는 각박한 이윤이 타당하다고 여길 만큼 철두철미했다. 본사의 횡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만큼 장사에 눈이 밝지는 않았지만, 편의점은 실속이 넘치는 금광처럼 보였다. 편의점의 이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투자금을 채워갔다. 이 중생활동 지겨웠다.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냈다. 돈을 빌리는 일은 일종의 선택받은 계층이어서 가능하고,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임에도 고의로 신용을 포기하는 연체자들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면 지쳤다. 일부 약성채무자를 통해 생 전제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곤 했다. 그거야말로 아버지가 말한 금처럼 느껴졌다. 연체자도 고객이라는 데 동의하지 못할 때마다 생겨나는 자살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채권추심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금처럼 여겨졌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금을 지워야겠다고 결심했다. 대수는 지금에 서야 그 결심을 후회했다. 자신의 삶에 빚금



그림-최현진

으로 들어와 균열을 일으켰던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짐작조차 되지 않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지곤 했다.

직장을 그만두자 선량한 동창이 말한 대로 시간이 남아 주식이 손됐다. 그리고 아내를 만났다. 편의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하루마다 정산하며 이익을 확인하던 순간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주식에다가 가상화폐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면, 편의점의 야간을 지키던 여자가 아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더라면, 여자를 관리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겹겹이만금의 급여를 책정하지 않았더라면 거미줄에 걸려 바둥거리는 벌레 풀은 피했을지도 모르는데.....

물건만 사고팔았던 게 아니라 아버지도 팔았고, 돈도 팔았고, 사랑도 팔았다. 편의점처럼 나는 다 팔았어. 못 팔아서 안달이었지. 그런데 그게 다 채무가 되었어. 어느 날 너 때 보니 나는 알류 당했어. 대수가 술 취해 친구에게 낚두리했던 적이 있었다. 이제 낚두리를 받아줄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묘한 슬픔이 느껴졌다. 그것은 대수가 지금은 가질 수 없는 사수인형 같은 것이었다.

대수는 사제업자를 다시 찾아갔다. 사수인형을 마련하려 웃돈을 더 얻을 요량이였다. 사제업자는 원금이라도 가져오면 얼마든지 빌려주겠다고 웃었다. 대수도 같이 웃었다.

대수는 동전을 밀어 넣으며 전화를 걸었다. 일 년 만의 통화였다. 막내누나는 학부도 모임이 있다고 말했다. 잘 지내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가족 중에 그나마 대화가 되던 누나였다.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를 박대한 것도 누나였다. 막내누나가 울었다. 눈물을 참으려고 둘째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둘째도 잘 지내느냐고 묻지 않았다. 대수는 잘 지내느냐고 물었다. 뜬금없이 인연 끊었던 누이 뜬금없이 전화 오니까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네. 전화를 끊어야만 했다. 대수는 큰누나의 가게로 갔다. 그저 배가 고팠다. 아무하고나 실컷 떠들어대고 싶었다. ▶15면에 계속

그랜드보청기

2021년 신축년 감사 이벤트

최대 50~70%할인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로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 祚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 064.742.6234

☎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양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양신협 2층)

☎ 756-2833